1950년대 실존주의 비평과 신인간론 연구

이평전*

〈차 례〉

1. 실존주의와 신인간의 결합과 분리
2. 실존적 주체의 자유와 실천
3. 근대와 계몽, 휴머니즘적 신인간
4. 윤리적 인간, 이데올로기적 신인간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실존주의 비평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제기된 신인간론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고, 또 당대 이데올로기적 상황과 어떻게 조응하는가를 살피고 있다. 1950년대 '신인간론'을 표방하는 상징적 흐름은 실존주의 담론과 교호하면서 당대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권력 주체들의 순응과 반발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이데올로기와 실존주의의 결합과 분리 과정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 비평사에서 실존주의 문학은 그 이론적 정합성의 부족과 개념의 자의적 차용에 따른 문제 때문에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받

* 서원대학교 교양학부

아 왔다. 그러나 사실 실존주의는 이 시기 근대화와 계몽의 담론을 추동하면서 문학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김동리와 조연현으로 상징되는 순수문학론은 실존주의 문학과의 차별화 과정에서 정치와 문학을 분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문학과 정치를 일원화시켰다. 이때 실존주의는 일종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변형되고 표층의 서구 철학적 실존 담론과 다른 근대화의 열망을 추동하는 심층의 계몽적 신인간형을 상상한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실존주의는 휴머니즘론, 민족문학론과 결합하면서 더욱 뚜렷한 이념적 지향을 드러낸다. 전시 상황에서 휴머니즘을 옹호하며 적을 비판하거나 인간 존재 가치 자체가 부정되는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휴머니즘적 인간이 탄생한 것이다. 이처럼 민족문학론과 실존주의 문학론 모두는 휴머니즘적 신인간을 지향하고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윤리적 인간을 창안한다. 윤리적 인간이란 단순히 사회 속에서 선을 목표로 도덕 규범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체험을 비판적으로 읽고 이데올로기적 차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인간을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신인간은 반공주의라는 거부할 수 없는 생존의 이데올로기적 윤리와 순응적 주체를 주조하려는 반공국가의 기획과 폭력 앞에 애초의 실천적이고 행동주의적인 자유로운 실존적 인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 굴절되고 만다.

주제어: 실존주의, 반공주의, 휴머니즘, 순수문학, 신인간, 윤리 이데올로기

1. 실존주의와 신인간의 결합과 분리

실존주의 사상이 전후 1950년대 한국 문학 전반에 미친 영향력은 상당했다. “진정으로 누구나 실존주의를 말할 수 있는 숙명적인 시기”[1]라는 조연현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실존주의는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지만 이후 우리 문학사에서의 평가는 그 유행의 정도와 달리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했다. 가장 흔히 거론되는 것은 당시 비평계의 이론적 정치함의 부족과 추상성에 대한 비판이다. 다시 말해 당시 철학과 문학 영역의 실존주의 수용 과정에서 그 의미를 잘 못 해석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념이나 용어를 자의적으로 차용하는데 머물러 있었다는 지적이다. 실존주의 수용에 따른 이런 비판은 1950년대 초기 김현의 비평에 잘 드러난다. 그는 「테러리즘의 문학」에서 1950년대 문학을 전통단절론과 휴머니즘으로 구분하고, 이 두 경향이 모두 서구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새것 콤플렉스”[2]에 기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진행된 이 시기 실존주의 비평은 대개 서구의 실존주의를 해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대적 인간상에 관한 논의는 1950년대 전후 실존주의 비평의 층위를 검토하는 과정의 특징적 국면으로 이른바 휴머니즘을 둘러싼 논쟁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다. 김윤식은 백철의 「행동하는 휴머니즘」을 개인의 전

---

1) 조연현, 「실존주의 해의」, 최예열 엮음, 『1950년대 전후문학비평자료 2』, 월인, 2005, p.68.

2) 한수영, 『한국현대비평의 이념과 성격』, 국학자료원, 2000, p.19 참조. 김현은 1950년대를 문학과 비평이 서구 이론을 무비판적이고 부정확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맹종했던 시기로 규정하는 데, 이런 인식의 배경에는 1920년대 유입 초기부터 1950년대 본격적으로 수용된 실존주의 논쟁이 결국 서구의 근대화된 문학의 불완전한 수용에 불과했다는 비판적 자각이 놓여 있다.

향 논리로 비판하고 1950년대를 좌우익 이데올로기가 내재화된 영도의 좌표에 선 시대로 규정한다.[3] 전기철 또한 앞서의 비평적 관점을 차용해 전후 세대의 정신적 상황, 즉 불안의식과 그 극복 의지를 실존주의와 모더니즘이라는 비평적 개념으로 구체화하고 있다.[4] 특히 실존주의 문학론을 민족문학론과의 논쟁 지점에서 파악한 한수영의 논의는 주목할 만한 것으로, 근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에 필요한 새로운 인간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유효한 단서를 제공한다. 1950년대 후반 실존주의가 근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주는 계몽의 담론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밝힌 김건우[5]의 논의 또한 중요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실존주의 관련 연구가 비평사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에 비해 지극히 제한적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전후 상황론[6]에 가려 해방 이후 근대 국가 수립 과정과 한국전쟁 이후의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에 실존주의가 담당했던 역할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예컨대 김동리와 조연현으로

---

3)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 일지사, 1976.

4) 전기철, 『한국 전후 문예비평 연구』, 서울, 1993.

5)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p.126.

6) 박유희, 「현실의 추상화와 기법의 실험」, 『비교문학』 25, 한국비교문학회, 2000, p.3. 전쟁을 겪었다는 상황만으로 프랑스로 상징되는 서구의 실존주의와 1950년대 실존주의를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 프랑스에서 실존주의가 부각된 것은 양대 대전을 거치면서 소외의 문제가 발생하고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쟁을 통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적 차원에서 존재의 자유와 주체성을 외치는 실존주의와 사회적 차원에서 소외의 극복을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식민지 상태였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이후라는 점에서 마르크시즘, 소외, 주체성과 같은 용어들은 당대의 절박한 생존 조건 아래에서 공허한 개념으로 인식된다.

상징되는 순수문학론은 실존주의 문학과의 차별화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정치와 문학을 분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논쟁 과정의 결과는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로 이어진다. '문학에 있어 참다운 사상이란 천편 일률적인 공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7]는 주장은 문단 권력과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술이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확고한 자의식을 지니고 자신의 실존에 관여하면서 직면한 상황을 개인과 실존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주체적 존재로서의 '신인간'을 상상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당대의 실존주의 수용의 한계와 방향성을 이해하는 경로가 된다.

일반적으로 실존이란 라틴어 '밖에(Ex) 나타낸다(Sistere)'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관념적 본질의 규정 또는 합리주의적 체계 밖으로 나온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자기 자신 밖에 초월한 존재라는 뜻이다. 이때 실존적 인간은 세계 안에서 자기 존재에 스스로 관심을 갖고 그 존재를 독자적인 방법으로 결정,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한다. 따라서 실존주의 문학은 생의 밑바닥에 깔린 본질적인 허무성에 천착하고, 나아가 존재의 퇴락성을 표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대중과 인류의 진실한 생활에 기초해서 단순한 인간옹호나 인간해방을 주장하는 문화주의가 아닌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현실 창조에 적극 참여하는 행동적인 휴머니티를 지향하는 인간을 그린다.

그러나 이런 서구적 의미의 실존주의 개념은 이 시기 실존주의를 이해하는 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당대 실존주의가 상상하는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점이다. 신인간은 해방 직후 좌우익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단독 정부 수립 이후의 반공주의의 강화, 자본주의의 확대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모습

---

7) 김동리, 『문학과 인간』, 민음사, 1997, p.63.

으로 변주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존주의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신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당대 이데올로기적 상황과 어떻게 조응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실존주의를 둘러싼 비평적 논쟁 과정에서 이른바 신인간론으로 상징되는 흐름이 실존주의 담론과 교호하는 지점을 밝히고, 이를 수용하는 권력 주체들의 순응과 반발의 논리를 추적함으로써, 전후 이데올로기와 실존주의의 결합과 분리 과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2. 실존적 주체의 자유와 실천

실존주의는 1920~30년대 하이데거, 야스퍼스, 니체와 같은 초기 실존 철학자들이 소개된 이래로 앙드레 말로나 생텍쥐페리 등이 평단에 거론되던 시기를 지나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8] 특히 1946년부터 소개되기 시작한 사르트르의 실존 철학은 이 시기 비평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아쉽게도 사르트르의 전후기 사상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존재와 무』와 『변증법적 이성비판』으로 대별되는 사르트르 철학은 논자에 따라 연속과 단절이라는 상이한 시각에서 평가되어 왔다. 『존재와 무』가 개인에 몰두한 주체의 철학이라면, 『변증법적 이성비판』은 개개 주체들을 매개의 개념을 도입해 집단으로 묶으려는 시도[9]로 읽힌다. 이런 실존주의

8) 1920년대 실존주의 문학은 외국 문학, 서구의 근대화된 담론의 형태로 수용되었지만 40년대 중반까지는 그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해방 후 1948년 10월 『신천지』 특집 기사를 계기로 문단에서 주목받게 된다. 이후 사르트르의 (「불란서 인이 본 미국작가」, 『신문학』, 1946.11.20.)과 (「전후 구라파의 문단」, 『신천지』, 1947.11.) 등의 글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된다.

9) 윤정임 외, 「사르트르의 비평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사르트르 수용」, 『실존과 참여』, 문학과지성사, 2012, pp. 243-244. 1950년대 실존주의 수용의

수용의 개념적 혼란에는 한국전쟁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현실은 세계의 현실이요, 첨단적 현실이다"[10]라는 발언 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당대 문학비평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와 도덕, 질서가 붕괴된 현실을 1·2차 대전을 겪은 서구 유럽의 그것과 동일시하면서 실존적 상황에 대한 세계성을 확보해 나간다. 또한 전후 세대 비평가들은 전쟁을 통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기존의 사유로 설명할 수 없는 절망과 불안, 죽음이 가득한 부조리한 공간을 경험하고, 인간의 불안과 절망을 넘어선 휴머니즘적 이상을 실현할 인간을 만들어 낸다. 문제는 이런 휴머니즘적 인간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피상적[11]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 개념적 굴절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대의 비평가였던 조연현의 발언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실존주의가 휴머니즘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이때의 휴머니즘은 "무목적, 무근거, 부조리, 허무, 고독, 불안" 같은 비극성을 넘어서는 의미로 "절망적 비극적인 속성으로부터 다시 발전"하여 인간 존재에 대한 긍정성을 회복시켜 준다고 말한다.[12] 흥미로운 것은 실존주의 담론이 니힐리즘을 극복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긍정성을 회복하자는 논의로 이어진 후 순수문학을 옹호하는 논리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 서양의 휴머니즘을 거부하고 동양적 휴머니즘을 통해 신

가장 큰 문제는 사르트르의 전후기의 극단적인 차이를 엄밀하게 구별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의 실존주의가 공산당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호의적 태도 때문에 비판받고 있다는 점이다.

10) 이태영,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의」, 『사상계』, 1953.5.

11) 상당 수 비평가들은 사르트르, 까뮈, 지드의 문학 작품을 통해 실존주의를 접한다.

12) 조연현, 앞의 책, p.70.

과 인간과의 조화를 이뤄 새로운 인간상을 구현[13]해야 한다는 김동리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휴머니즘적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이것은 문인좌담회를 중심으로 6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실존주의 논쟁에서 언제나 핵심적 논제였다. 『사상계』 1957년 6월 호 「문학자, 철학자가 오늘과 내일을 말하는 좌담회 - 휴머니즘을 중심으로」[14]에는 '현대를 新휴매니즘 시대라고 불러서 可하지 않을까'(손우성), 전쟁 때문에 인간의 질서와 가치체계가 붕괴된 이후 새로운 질서를 찾아내려는 것이 '휴머니즘의 원리'(안병욱)라고 주장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박종홍 또한 근대의 합리성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가 말하는 실존에는 서구와 달리 저항과 참여의 문제가 주요한 휴머니즘의 원리가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최재서는 저항의 구체적 대상으로 무지와 부정을 안병욱은 빈곤 해방을 지목하고 이를 휴머니즘의 과제로 제시한다. 여기서 사르트르에 의해 주창된 앙가쥬망(engagement)의 본래적 의미에 대한 고찰이 이뤄진다. 사회참여와 자기구속의 의미를 갖는 앙가쥬망은 인간이 사회 현실에 구속되어 있으며, 동시에 그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는 존재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개념이다.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외부의 모든 것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에게 실존주의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자 '회의의 능력'[15]을 갖춘 휴머니즘적 인간인 것이다. 인간은 "회피할 수 없는 어떤

---

13) 김동리, 「휴머니즘의 본질과 과제」, 『현대공론』, 1954.9.

14) 1957년 4월 13일 열린 이 좌담회는 철학자이며 사상계 편집위원인 안병욱이 사회를 보고, 박종홍(철학자, 서울대 문리대 교수, 손우성(불문학자, 성균관대 문리대 학장), 이종우(철학자, 고려대 교수), 최재서(영문학자, 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15) 조가경, 『실존철학』, 박영사, 1991, pp.160-421.

문제와의 관련 하에서만 자유"[16]를 갈망한다는 사르트르의 진술은 당대 비평가들에게 폭로된 대상 앞에 책임을 지고 사회 현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실존은 자유의 줄에 매달려 있다', '자유는 곧 인간 실존이다', '인간은 곧 그의 자유다'[17]하는 등의 경구에서 확인되듯이 자유가 인간 존재에 근본적 의미라는 자각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1950년대 중후반 특히 오상원과 같은 작가에게 자유의 개념이 중요했던 것은 당연해 보인다. 실존주의와의 관계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는 오상원은 부정의 자유를 실천의지와 접목시킨다. 오상원 소설의 주인공 대부분은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회의 속에서 '인간' 자체를 발견하고, 평범한 인간과 더불어 살기 위해 역사와 혁명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한다.

오상원의 소설 「균열」의 배경은 해방 직후 신의주이다. 주인공 박은 소련의 괴뢰 노릇을 하는 정치인을 암살하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상과 주의를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전부'[18]가 아닐지 모른다는 회의를 경험한다. 그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당해 고문 끝에 불구가 된 아버지와는 달리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을 꿈꾸게 된 것이다. 때문에 주인공에게 암살은 정치적 신념의 실천이기 이전에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살인 순간 "정치란 게 무언지 알어? 결국 인간을 죽이는 것이거든"이라는 자기 기투의 답변에는 타인들의 시선에 묶인 채 암살을 결행하고, 다음 한 순간 결박에서 놓여나 "내가 나를 찾아 진실이 돌아오는" 찰나를 목격하겠다는 자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런 자유의 실천적 의지를 지닌 휴머니즘적 인간은 1950년대 후반의 정치적 기획과 만나면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

16) R.M. 알베레스, 정명환 역, 『싸르트르의 사상과 문학』, 신양사, 1958, p.161.
17) 김재준, 「민주주의론」, 『사상계』 1953.5, p.31.
18) 오상원, 「균열」, 『한국대표단편문학전집 7』, 경미문화사, 1979, p.27.

렵게 된다. 한국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냉전 논리는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반공 국민을 만들어내고,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 체제의 한 가운데 새로운 인간형이 그 빈자리를 채운다.[19] 이 신인간형에 대한 탐문은 곧 문학 자체가 지니는 보편성과 전후 현실에서의 문학이 상호 변증법적으로 대립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근대와 계몽, 휴머니즘적 신인간

실존주의가 당시 지식인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신 없는 인간의 비극적 자유를 전하면서도 서구의 합리주의적 이상주의에 대한 확신을 거부하고 현실의 절망에 대한 명확한 자각을 통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암울한 시기의 극한 상황을 인정과 인간 조건의 탐구, 사회 부조리의 사실적 묘사와 우화적 형상화를 통해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존주의는 본래 자연법에 근거한 과학성과 객관성을 부인하고 개인적 실존과 주관적 의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실존이 사물의 존재(est)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일이다. 인간은 미래의 투사에 의해 현실상황을 초극할 수 있는 초월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되고, 이 때문에 실존주의는 인간 중심의 인간과학으로서 주관적 개체성을 중시하는 휴머니즘과 접목된다. 이런 휴머니즘은 인간의 특정 활동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철학적, 실증 과학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예술적인 모든 능력의 복합적 활동으로 실현될 수 있다.[20] '실존은 본

19) 권혁범,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삼인, 2004, p.8.
20) 여종현, 『현상학과 휴머니즘』, 철학과현실사, 2001, pp.278-279.

질에 선행 한다'는 사르트르의 유명한 테제가 휴머니즘과 만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인간 존재의 절대적 자유에 대한 믿음을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간이란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존재로 자신을 이루어 가는 상황 곧, 그 행위의 존재자로 귀결되며 이때 인간의 무한한 자유와 책임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것이다. 1945년 사르트르의 당시 대중 연설 원고였던『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가 1950년대 비평에서 많이 인용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 "실존 사상은 인간의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고래(古來)의 휴머니즘의 일환을 이룬다. 다만 그것은 인간 존재의 무근거성과 그 불안스런 양상이라는 부정적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을 지속시키고, 그것을 철저히 밝히고, 될 수 있는 한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모럴을 제시하려는 매우 위태하고도 보람 있을 휴머니즘의 시도이다."[21]

이런 관점에서 인용된 장준하의 진술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실존주의를 '자유세계의 지성을 좀먹어 들어가는 것으로, 이런 사조를 맹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22]고 강조하며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휴머니즘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선 좌담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박종홍은 르네상스, 문예부흥, 종교개혁과 같은 서구적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서양 사람이 근대 과학 문명에 인제 그만 진저리가 나서 인간의 본래적인 참된 면목으로 돌아가자는 실존주의가 요구된 것이라면 그만한 과학문명도 합리적 이론도 가져본 일이 없는 우리로서 비록 실존주의에 공명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

21) 정명환,「실존주의와 문학』,『20세기 이데올로기와 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pp.34-35.

22)『사상계』, 1955.10.

야말로 좀 다른 생리에서 통하는 점"[23]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한다. 안병욱 또한 실존주의의 허무적 성격을 비판하며, 휴머니즘을 통해 현대사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여기서 좌파적 성향을 띤 비평가 김동석의 사르트르 비판을 통해 앞서와는 다른 맥락에서의 실존주의 비판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는 사르트르의 실존철학을 '자유주의적 인텔리들의 포기, 고민, 절망의 철학'으로 규정하고 사르트르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자가 해방기의 긴급한 정치 상황에서 "사상의 병균이니만치 혹시 전염되는 인텔리가 있을까 저어"[24]된다고 말한다. 흥미로운 것은 사르트르가 공산주의와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자 곧 바로 그 논리를 폐기했다는 사실이다. 반면 조석동이 실존적 인간의 확립을 위해서 이른바 문맹계열의 문학을 타파하고 새로운 실존적 문학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작가들이 박두진이나 김동리라는 점에서 보면 그의 실존적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실존적 인간 추구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장준하가 『사상계』에서 언급한 '창조적 인간형'은 1950년대 실존주의를 둘러싼 신인간형의 분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창조적 인간형>이란 總體로 현대의 역사적 상황과 그 속에 던져진 자기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창조적으로 극복해 가는 삶의 자세를 찾아보고자 한 것이 이달의 특집이다. 위기니 극한이니 정신의 몰락이니 하는 말이 관사처럼 붙어 다니는 것이 현대지만, 비록 오늘의 인간조건이 유례없이 심각한 모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까지나 니힐리즘의 미학만을 반추하고 있을 수는 없다. 부정의 정신을 넘어 새로운

23) 『사상계』, 1957.6.

24) 김동석, 「실존의 특집, 실존주의비판 - 사기, 고민, 절망의 철학, '싸르트르'를 중심으로-」, 『신천지』 3-9, 1948.10, pp.75-81.

> 질서를 위한 긍정의 윤리, 그것이 곧 '창조적 인간형'에 요청되는 윤리 일 것이다.[25]

이 창조적 인간은 박종홍의 말처럼 '바람직한 인간상'이다.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간" 즉 근대화의 논리에 충실한 인간형이 바로 창조적인 인간인 것이다. 장준하는 1955년 8월호 권두언에도 민족 근대화의 과제로 "진보를 가로막는 누습과 타력 의존과 태만으로부터 해방되고, 터무니없는 인권유린과 권력남용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의 소치에서 오는 빈곤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역설한다.[26] 이 새로운 인간의 조건으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민족 근대화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가 곧 조국과 민족의 근대화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50년대 이후의 휴머니즘론이 김우종의 지적처럼 '계몽'의 논리[27]로 전개 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이광수 같이 계몽적이고 공리적 문학관을 통해 근대화에 대한 대중 계몽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로 요약되는 김동리적 순수성과 실존주의가 만나게 된다.

이처럼 실존주의는 1940년대 초반 세대 논쟁을 거쳐 순수문학론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문학론으로 등장한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실존주의 문학이 이후 휴머니즘론, 민족문학론과 결합하면서 보다 뚜렷한 이념적 지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전시 상황에서 휴머니즘 옹호를 통해 적을 비판하거나,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존재가치 자체가 부정되는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휴

---

25) 『사상계』, 1960.5.

26) 『사상계』, 1955.8.

27) 김우종, 「작가적 휴머니스트 - 휴머니즘은 방법론이 아니다」, 『현대문학』, 1963, p.410.

머니즘적 인간형이 만들어진다. 이 시기 민족문학론과 실존주의 문학론 모두 휴머니즘적 신인간을 지향하지만 그 휴머니즘의 구체적 모습은 이질적이다. 17~8세기 휴머니즘은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전유된 진보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연과학의 발전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구축되자 프로테스탄트 정신으로 상징되는 개인주의적 휴머니즘은 역사적 성격을 띠게 되고 이때부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는 휴머니즘이 등장한다. 이와 달리 계급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외를 생산관계의 변혁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마르크스주의를 휴머니즘으로 이해하거나 마르크스주의와 대립하지만 도구적 이성을 비판하고 사유에 대한 존재의 선행을 내세운 실존주의를 휴머니즘으로 부르기도 한다.[28] 휴머니즘에 관한 이런 상반된 이해는 인간 본성과 윤리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 1950년대는 그 논란의 중심 무대인 것이다.

4. 윤리적 인간, 이데올로기적 신인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휴머니즘적 인간에 대한 열망의 이면에는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이 시기 작가들은 전쟁에 대항하고 분단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생명력을 지닌 전인적인 휴머니즘적 인간을 상상한다. 이때 전인이란 인간의 생명과 가치와 창조력을 중시하고, 반인간적 사회 조건과 대결할 수 있는 윤리적인 인간을 뜻한다. 그것은 해방 후 백철이 내세운

28) 오세영, 「한국 현대문학과 휴머니즘」, 『휴머니즘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8.

신윤리주의와 닮아 있으며 또한 「작가의 책임」에서 사르트르가 언급한 앙가주망의 참여와 실천의 문학적 인간을 연상시킨다. 백철은 「문학시평」에서 사르트르를 인용하며 시대적 선을 주장하고, 「문학정신의 방황시대」에서는 신윤리의 문학정신 즉, '현대인의 생활윤리와 신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참다운 문학[29]이라고 말한다. 이는 의미상, 해방 전 김동리가 '문학의 사상적 기초를 위하여', '생의 구경적 형식'에서 밝힌 '문학의 본령'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30]

비평사에서 이런 윤리적 인간의 연원을 쫓다 보면 결국 김동리의 순수와 만나게 되는데, 이 순수는 전후 반공이데올로기나 문단 권력의 문제와 결합한다. 때문에 그가 「신세대 정신」에서 언급한 "문학정신의 본령 정계의 문학"이라는 순수의 거창한 주제는 '보편적 인간과 개성'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정의되고 만다. 해방 이후에 쓴 「순수 문학의 진의」를 보면 그의 문학론이 결국 정치 체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성의 자유와 인간성의 존엄을 목적으로 하는 조류를 데모크라시, 과학이라 불리는 현대적 우상을 숭배하는 과학주의적 기계관의 결정체를 유물사관'[31]으로 보는 그의 관점은 계급문학에 맞서는 순수문학의 정치론을 피력한 것이다. 문제는 순수문학이 조국애나 민족혼 같이 조국과 민족이라는 개념의 내포를 갖는 민족문학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의식에 경화한 것', 일체의 다른 사상을 부정하는 배제의 논리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해방기 이데올로기 논쟁 과정에서 순수문학론은 문학의 좌우논쟁뿐 아니라 문단 진영 간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변질되고, 이때, 김동리, 서정주, 조연현 등의 이른바 전통론이 반공주의와 반공주의에 호도된 어용적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며 문단의 지배 권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

29) 『백민』, 48.3, p.11.
30) 김동리, 「문학하는 것에 對한 私考」, 『백민』, 1948.2.
31) 김동리, 「순수문학의 진의」, 『문학과 인간』, 청춘사, 1952, p.107.

순수에서 시작된 윤리적 신인간은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자유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구체적 인물로 설정된다. 주요한은 '공산주의와 마르크시즘, 파시즘 같은 서구 이론들이 이론 체계의 정연함은 있지만 인간성을 시인하지 않는 커다란 비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민주주의의 생리화, 민주주의의 생활 도덕화를 강조한다.[32] 자유, 즉 민주가 곧바로 반공을 의미했던 이 시기에 윤리적 인간은 반공주의적 인간의 다른 이름이다. 특징적인 것은 이런 반공주의가 이른바 '심연의 기율', 즉 '윤리적 인간관'으로 손쉽게 대치된다는 사실이다. 실제 선우휘 같은 소설가들은 '윤리적 인간을 가로막는 상황과 조건'을 보여주는 데 주력한다.[33] 해방 이후 정치적 생존을 위해 지배/피지배 집단 할 것 없이 모두 반공주의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이데올로기는 생존을 위해 수용되고 동시에 권력의 획득을 위해 꼭 필요한 이념적 무기로, 억압의 기능과 동원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34]

「깃발 없는 기수」(『새벽』, 1959, 12)는 윤리적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해방 직후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빚은 비인간적 인 테러리즘을 고발하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 '윤'은 이데올로기적 대립 속에서 어떤 깃발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이념의 깃발이 아닌 인간 존엄성을 유린하고 희생시키는 부당한 폭력에 대한 항거의 깃발을 상징하며 휴머니티를 옹호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알몸을 던져 그 무엇을 찾아 방황한 그의 혼에 대해 일국(一掬)의 눈물"[35]은 개인과 집단의 갈등, 혼돈 사회 상황과 부조리한 현실에서 비롯된 개인의 실존적 고뇌를 상

32) 주요한, 「민주주의의 활로는 어디로부터」, 『새벽』, 1955.3.
33) 한수영, 「윤리적 인간 혹은 반공이데올로기의 기원 - 선우휘론」, 『실천문학』, 2001 봄, p.265.
34) 강강성, 「반공주의」, 『역사비평』, 1999 여름, p.284.
35) 선우휘, 『선우휘 선집 3』, 조선일보사, 1987, p.22.

징한다.

그러나 식민 유제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좌우익 이념을 실천하는 테러리스트로 변모한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주인공은 실제로 해방 정국에서 이념적 주도권을 쥐고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며 좌익의 비윤리성에 대한 비판을 위한 위장의 전략을 취한다. 김동리의 「형제」에는 가족의 윤리조차 저버린 반인륜적 인간 '신봉'과 좌익의 천인공노할 폭력과 학살 소문을 듣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조카를 구해내는 '인봉'이 등장한다.[36] 3인칭 서술자는 인봉을 따라가며 "인간도살장"이 되어버린 경찰서에서 자행된 적색 반란군의 고문과 학살을 비판하고 있다. 조카마저 쉽게 처형하는 잔혹한 이미지의 신봉과 달리, 인봉은 조카 성수를 구출하는 장면에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인간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 인도와 박애는 숭고한 사상이지만, 국가와 민족은 우리의 모든 이해와 운명이 직결되는 핏줄 같은 것이지만, 그리고 억울한 자, 가난한 자가 부와 권력에 짓눌리는 현실의 일각은 정의의 피를 끓게 하지만, 그렇더라도 문학이 그들 편에 서고, 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 문학은 인간 자체와 더불어 그 어떠한 다른 가치에도 종속될 수 없 기 때문이다. 문학이 '누구 편'에 서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경향문학이나 목적주의 문학에 불과하며 진정한 인간의 문학이라 할 수 있는 본격문학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37]

이제 반공이 윤리의 차원을 넘어 체제 수호의 문제로, "자유체

---

36) 김동리, 「형제」, 『김동리 전집 2권』, 민음사, 1995, p.139.

37) 김동리,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문학의 논쟁사』, 어문각, 1985, p.489.

제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거부한다면 결국 사회주의 체제"[38]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는 더 이상 인간의 실존을 고민했던 사유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이는 이 시기 문학이 정치의 영역에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인간형에 대한 탐문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실존주의는 사실 사상적 편력이 심한 사르트르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 자체를 거부한다. 그럼에도 일체의 사회 제도와 이를 기반한 관념을 거부한 채 형장으로 향하는 「이방인」의 뫼르소가 1950년대 한국에서 반공주의적 자각에 따른 실존적 결단과 등치되는 「불꽃」의 주인공 '현'으로 오역되는 것은 바야흐로 반공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용학의 「요한시집」에는 한때 훈장까지 받았던 괴뢰군 출신 누혜가 포로수용소에서 이데올로기적 회의에 빠져, 죽음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죽음의 선택은 동료들로부터 변절자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인민의 벗이 되려고 했으나 당에 들어가 보니 인민은 없고 인민의 적을 죽임으로써 인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의 괴리"와 "자유에의 길을 막고 있는 벽"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실존적 결단을 내려 자신이 이념적 자유를 가진 인간임을 만천하에 선포하기 위해, 그는 혐오하는 냉전의 상징체인 철조망을 목에 감고 죽음을 택한다. 이처럼 공산당과 인간의 존엄성을 걸고 싸우는 새로운 인간은 내면화된 검열과 타자에 대한 검열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던 1950년대 반공주의가 만들어낸 신인간이다.

해방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격변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한 일부 문인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생리적 거부를 인정

38) 김동리 · 백철 대담, 「한국문학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현대문학』, 1979.6. p.316.

하더라도 반공주의에 순응적인 주체를 주조해내려는 전체주의적인 기획에 따른 폭력적 권력과 제도의 무차별한 적용이 주요한 동력이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물론 자기 검열을 통해 제도적 억압과 검열을 효과적으로 우회하는 문학적 장치를 마련하고 심미성을 강조하는 등 근대적 주체의 미적 기획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능동적 효과를 창출[39]했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선우휘의 경우에서 확인되듯이 이데올로기적 윤리로 무장한 신인간형의 완성은 근대화 과제의 전면화를 통해 지배의 동의 기반을 확장하려 했던 반공국가 권력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 론

1950년대 한국 문단은 실존주의와 휴머니즘 문학론의 전개 과정에서 저항과 행동 주체로서의 근대적 인간상에 대한 탐문이 이뤄지고 또한 서구적 타자에 대한 수용과 인식의 확대, 예컨대 전통론이나 민족문학론 같은 비평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문제는 이런 신인간에 대한 관심이 서구 실존주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자유와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그리는 자연주의 문학에 반기를 들고 세기말의 허무와 퇴폐, 회의의 전쟁터를 경유하는 서구의 문학은 심각한 사회 모순과 고민을 반영하고,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신흥 계급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면서 실존주의 문학을 호명한다.

이와 달리 한국은 전쟁 이후 이데올로기가 전면화되고, 사회 참여와 존재를 진지하게 탐색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상의 순수함

39) 유임하, 「마음의 검열관, 반공주의와 자기 검열」, 『반공주의와 한국문학』, 깊은샘, 2005, p.150.

과 불순함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따른 문학의 진영 논리가 점차 강화된다. 순수라는 문학 이념의 등장과 건국 직후 전개된 반공주의 이념의 검증 속에서 실존주의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원천이 된 것이다. 김동리는 가장 상징적 인물로 그가 선택한 순수문학론은 곧 체제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1950년대 실존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상원, 선우휘 등의 작품에 나타난 새로운 인간형은 기존 윤리 의식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이지만 그 서사의 단층에는 반공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전쟁 이후 실존주의는 휴머니즘론, 민족문학론과 결합하면서 더욱 뚜렷한 이념적 지향을 보여주고 이 과정에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휴머니즘적 인간을 상상한다. 주목할 것은 실존주의 문학이나 민족주의 문학 모두 휴머니즘적 신인간을 지향하고 그 구체적 재현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때 윤리적 인간이란 단순히 사회 속에서 선을 목표로 도덕 규범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체험을 비판적으로 읽고 그것을 이데올로기적 차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인간을 말한다. 이런 신인간은 반공주의라는 거부할 수 없는 생존의 이데올로기적 윤리와 순응적 주체를 주조하려는 억압적 국가 권력 앞에 애초의 실천적이며 행동주의적인 또한 자유로운 신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점에서 실존주의는 순수문학, 반공주의와 결코 상치되거나 서로 회피되는 관계가 아니라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굴절된 신인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강성, 「반공주의」, 『역사비평』, 1999, pp. 279-289.
권혁범,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삼인, 2004.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김동리, 「문학하는 것에 對한 私考」, 『백민』, 1948, pp. 42-44.
김동리, 「순수문학의 진의」, 『문학과 인간』, 민음사, 1997, pp. 79-81.
김동리, 「형제」, 『김동리 전집 2권』, 민음사, 1995.
김동리, 「휴머니즘의 본질과 과제」, 『현대공론』, 1954, pp. 118-125.
김동리, 『문학과 인간』, 민음사, 1997.
김동석, 「실존의 특집, 실존주의비판-사기, 고민, 절망의 철학, -'싸르트르'를 중심으로-」, 『신천지』 3-9, 1948, pp. 75-81.
김우종, 「작가적 휴머니스트-휴머니즘은 방법론이 아니다」, 『현대문학』, 1963, pp. 408-413.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 일지사, 1976.
김재준, 「민주주의론」, 『사상계』 1953, pp. 26-38.
박유희, 「현실의 추상화와 기법의 실험」, 『비교문학』 25, 한국비교문학회, 2000, pp. 177-207.
선우휘, 『선우휘 선집』 3, 조선일보사, 1987.
여종현, 『현상학과 휴머니즘』, 철학과현실사, 2001.
오상원, 「균열」, 『한국대표단편문학전집』 7, 경미문화사, 1979.
오세영, 『휴머니즘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8.
유임하, 「마음의 검열관, 반공주의와 자기 검열」, 『반공주의와 한국문학』, 깊은샘, 2005, pp. 129-156.
윤정임외, 「사르트르의 비평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사르트르 수용」, 『실존과 참여』, 문학과지성사, 2012, pp. 238-266.
이태영,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의」, 『사상계』, 1953.5, pp. 12-25.
전기철, 『한국 전후 문예비평 연구』, 서울, 1993.
정명환, 『20세기이데올로기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조가경, 『실존철학』, 박영사, 1991.
조연현, 「실존주의 해의」, 『1950년대 전후문학비평자료』 2, 월인, 2005,

pp. 68-75.
주요한,「민주주의의 활로는 어디로부터」,『새벽』, 1955.3.
한수영,「윤리적 인간 혹은 반공이데올로기의 기원 - 선우휘론」,『실천문학』, 2001, pp. 259-279.
한수영,『한국현대비평의 이념과 성격』, 국학자료원, 2000.
홍신선,『우리문학의 논쟁사』, 어문각, 1985.
R.M. 알베레스, 정명환 역,『싸르트르의 사상과 문학』, 신양사, 1958.

A Study on Existentialist Criticism and the New Man in the 1950s

Lee, Pyeong-Je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looking up how the new man emerged in the debating process over the existentialist criticism, and how to encounter the contemporary ideological circumstances.

The 1950s, the era in which the logic of compliance and resistance worked by the power subjects accepting ideology, shows the compression process of the separation and combination of ideology and existentialism since the Korea War. It means that a symbolic flow representing the new man meets the discussion of existentialism.

In the literary Criticism, existentialist literature has been largely negative assessment because of the problems that lack of theoretical matching, and borrow the concept arbitrarily. Nevertheless, existentialism plays an important role in literary history by driving the discussion of the modernization and enlightenment in the period.

The pure literature, symbolized by Kim Dong-ri and Joe Yeon-hyeon, seems to separate the politics and literature in the process of differentiation with existentialist literature, but it actually was the cause of strengthening anti-communism ideology. In the late 1950s, such an existentialism has been transformed into a kind of liberal ideology, and imagines the new enlightenment man of depth driving the aspirations of modernization that is different from the Western philosophical existence of the surface.

In addition, the existentialism by combining with people literature reveals a more distinguished ideological orientation since the Korea War. The humanitarian man was created as a alternation to overcome the realistic crisis criticizing the enemy by defending humanism in time of war, and on the other hand being a negative value of human existence itself.

Thus, both people literature and existentialist literature oriented the humanitarian new man and pursued the ethical man as its concrete shapes. The ethical man refers to a man who can read critically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Korea War and switch it as the ideological dimension.

In conclusion, the new man is the result made by the country's modern planning and violence to form the irresistible ideological ethics(anti-communism) of survival and the adaptive subjects.

Key words: Existentialism, Anti-communism, Humanism, Pure Literature, New man, Ethics, Ideology

이평전
소속: 서원대학교 교양학부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241
전화번호: 010-9308-3824
전자우편: pyeoung2@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7월 10일 투고하여
2012년 8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8월 23일 게재 확정함.